

##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주 등록교우 : 박정원 집사(남선교회), 김신영 집사(여선교회) 두 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3. 오늘 점심은 박숙이 권사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점심은 유숙정 권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4. '제직 및 직분자 세미나'는 오늘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가집니다. 제직과 각 위원회 위원장 및 교사 등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미나는 동명교회 최학식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합니다.
5. <하늘문의 만나> 3월호가 출간되어 본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셔서 목상용·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새가족양육반' 교육(4주)이 오늘(3/10)부터 시작됩니다. 새가족 및 혹 기존성도 가운데 신앙점점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김전희 목사님(010-7900-7179)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3월 10일	3월 17일	3월 24일	3월 31일
예배기도(2부)	이희문 집사	인도자	신태식 장로	유중열 장로
예배기도(오후)	인도자			
식사담당	박숙이 권사 가정	유숙정 권사 가정	차미자 집사 가정	가정의 주일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 환우들을 위해서(곽성미 집사, 윤형근 장로, 양은임 권사)
3.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십티(함안), 예수교회(대구), 두리원(장애인 복지시설)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 HANEULMUN VISION MESSAGE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구은세 ■ 협동목사: 김전희 ■ 전도사: 박일선, 김진규  
 ■ 시무장로: 유중열, 박성근 ■ 협동장로: 김운식, 윤형근 ■ 은퇴장로: 신태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	인도자
*성시교독 .....	다같이
*경배찬송 .....	다같이
*참회기도 .....	다같이
*신앙고백 .....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	다같이
대표기도 .....	김수환 장로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	인도자
자녀를 위한 기도 .....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	인도자
말씀선포 .....	허영진 목사
마무리기도 .....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	인도자
*결단송 .....	다같이
*축도 .....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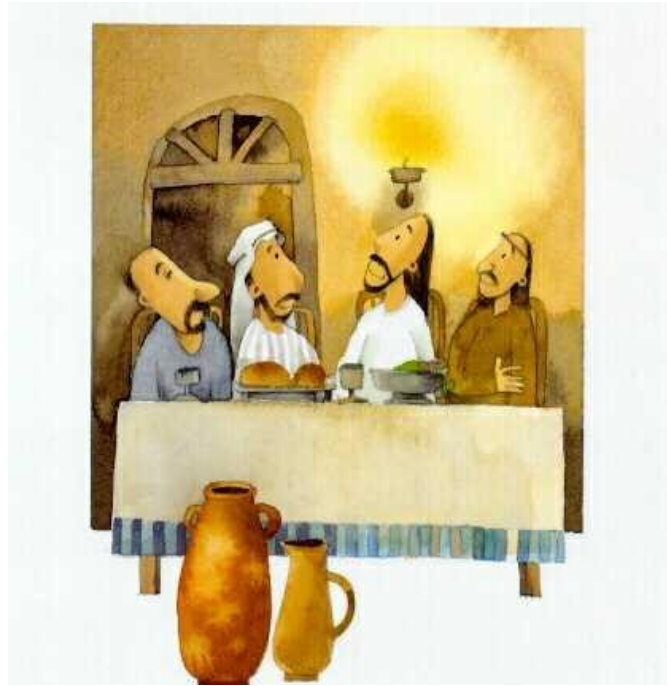
이달의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8,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찬양예배는 '제직 및 직분자 세미나'로 인해 없습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사복음서 강해 허영진 목사  
마 16:5-12 '조심해야 할 누룩'(2)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인만>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

지난(至難)한 겨울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가끔 꽃샘추위가 자기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지만, 봄의 온기 앞에 주눅 들어 그 세가 약해졌습니다. 따스한 봄, 언제나 올까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이렇게 불쑥 우리 앞에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남녘땅에는 봄의 전령인 매화가 만개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물론 그렇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로 찾아 왔다가 미련도 아쉬움도 뒤로 한 채 훌쩍 떠날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더디 흐를 것만 같은데 계절의 손님은 이내 우리네 시야에서 일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힘겨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끝 모를 수렁'에서 말입니다. 다만, 지금 '끝 모를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숨보다 더 큰 생명을 소망하고, 이 세상보다 더 큰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끝 모를 수렁'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고, 분명히 그 끝은 있는데, 언제 그 끝이 나타날지 몰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도 이 믿음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또한 평탄한 곳에서 있는 이들이나, 높은 곳에서 있는 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며, 평안하여 번영할 때 이 믿음이 있으면 교만해지거나 타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깊은 물에 빠졌을 때나,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서 있을 때나,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어려울 때만 부르고 형편이 나아지면 잊는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时时때때로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나아가 주님과 깊은 사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울 때,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위기극복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경험케 되는 위기극복이야말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의 맞으며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Written by 허영진